중동, 아프리카 지역

■ 나이지리아, 섬유수입 규제관련 현지동향

□ 수입금지 배경

-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 월 7 일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(Federal Executive Council)에서 섬유직물을 포함, 아래의 40 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하고 동 각료회의 직후 공보장관과 재무장관이 동 수입금지 결정내용(1 월 7 일부터 수입 금지를 실시하되 향후 90 일간의 유예기간 설정)을 정부 출입기자 들에게 브리핑했음.
- 이로써 1 월 8 일 및 9 일자 현지 주요 일간지 등 언론에 보도되었는데, 이 중에는 한국 섬유 수출 품목 중 주력 품목인 자수직물(Embroidery Lace)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수출업체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.
- 이번 수입금지 조치 배경에는 낙후된 자국산업의 개발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의 투자유치 유도라는 측면 이외에도 나이지리아 면직물 제조업자들의 치열한 대정부 로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음.

□ 진행상황 및 현지동향

-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WTO 규정 위배를 골자로 한 항의성 공문을 전달하고, 또한 관련 현지 수입 업계도 항의 및 로비 등의 활동을 벌였음. 주재국 정부는 4 월초 나이지리아 자수직물 딜러협회(ELDAN ; Embroidery Lace Dealers Association of Nigeria) 회장단이 나이지리아 연방의회 상원의장을 방문, 현재 자수직물 업체가 처한 입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수입금지의 적용시점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약간씩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음.
- 4 월 12 일 22:00 나이지리아 공영 TV 방송인 NTA 에 출연한 주재국 관세청 공보관 Mr. Wale 은 금수 조치시점 이전에 주문하여 통관 대기 중인 자수직물 제품에 한하여 5 월 1 일부터 90 일간 유예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하였음.
- 상기 발표관련 당 무역관은 라고스 지역 세관당국(Zone A) 공보관 Mr. Nnnadi. A 씨를 4 월 14 일 무역관으로 초치, 동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바 90 일간의 유예조치는 확실하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부 지시문건을 아직 없으나 그대로 이행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. 또한 이 조치가 직물류의 수입금지 자체의 유예가 아닌 기 주문 완료 되어 통관 대기 중인 제품에 한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음.
- 한편, 首都 아부자에 체재중인 駐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이 최근 동건과 관련하여 주재국 재무부 재정정책 부국장 Mr. Lzuegbu 를 면담한 바에 따르면 "자수직물에 한해서 금수조치 시점을 2004. 1. 4 이 아닌 2004. 4. 4 을 기준으로 하라"는 지침이 대통령실로부터 하달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, 유예조치의 의미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음.

- 그러나 또 다른 재무부 관리(담당과장)와의 면담에서는 금지조치 이전에 계약이 성사된 자수직물에 대하여는 연장된 유예기간 동안 수입 통관이 허용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 간에도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보이고 있음.
- 유예기간 기준일자에 대해서도 주재국 재무부(4 월 4 일 부터)와 관세청(5 월 1 일)간 다른 발표를 하고 있어 아직은 담당 공무원들도 금수조치에 대한 확고한 내부 컨센서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.
- 현 시점에서 현지 나이지리아 자수직물 시장은 대체로 발표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을 이루어지는 등 평온한 편이나 향후 수입물량 축소 등을 감안, 제품시세는 다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- 동 사안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해 아직은 예측할 수 없으나 지의 수입상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.

(문의처 : 라고스무역관 류철상 mina2000@kotra.or.kr)